

김용석 대광위원장, “동북선 경전철 ‘27년 개통, 서울 동북권 교통편의 향상 기대”

- 12일 오후 건설현장 찾아 점검·관계자 격려... 차질없는 공사 진행 당부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3월 12일 오후 서울 동북선 경전철 건설현장(서울 제기동역 일대)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.
 - 동북선 경전철*은 노원구·강북구·성북구·동대문구·성동구 등 서울 동북권의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민자 도시철도 사업이다. 개통 목표는 ‘27년 하반기이다.
 - * 총연장 13.4km, 정거장 16개소, 차량기지 1개소 / 총사업비 15,128억원 / 차량 25편성
- 김 위원장은 “동북선이 개통되면 환승 없이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25분만에 이동*이 가능해져,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
 - * 현재 상계역에서 왕십리역 이동 시 4호선에서 2호선으로의 환승 필요 / 37분 소요
- “특히, 해당 노선은 총 8개 노선 및 7개 역에서 환승*이 가능한 만큼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 - * 왕십리역(2호선·5호선·경의중앙선·분당선), 제기동역(1호선), 고려대역(6호선), 미아사거리역(4호선), 월계역(1호선), 하계역(7호선), 상계역(4호선)
- 김 위원장은 “동북권의 출퇴근 및 통학 편의성 향상과 강북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국민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사업 추진에 힘써달라”고 당부하면서,

- “무엇보다 계절 전환기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,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”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	책임자	과 장 안광열 (044-201-5100)
		담당자	사무관 김민승 (044-201-5028)